

시정정당공약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 근처
- (명동출발) IC 영수증 100% 결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 광주 프로축구 제 16구단 창단 무산 위기

# 시민 혈세 40억원 날릴 판

## 연내 창단 못하면 가입금 연맹에 귀속 市, 경제적 기반 취약...창단에 소극적

프로축구 '제 16구단' 창단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광주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새로운 프로구단을 창단하지 못할 경우 광주시는 이미 납부한 가입금 4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여서 이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2년 국군 체육부대와 상무축구단을 운영하기로 한 광주시는 지난 2004년 프로축구 연맹에 가입비 10억원과 축구발전기금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내고 K-리그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시와 프로축구 연맹은 2008년 말까지 프로축구팀을 창단해 2009 시즌에 참가할 경우 가입금과 발전기금 40억원을 승계해 주기로 합의했었다. 창단 작업이 불발에 그치면 40억원은 연맹에 귀속된다.

광주시는 프로축구단 창단비용과 운영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새로운 구단 창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시는 애초 '지역 연구 모기업 창단'을 추진했으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 특성상 해당 기업을 찾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이에 5~10개 정도의 기업이 합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시민구단' 쪽으로 선회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실업축구 울산 현대 미포조선이 30억원 가량을 제시하면서 광주를 연고로 한 시민구단 창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광주시가 창단·운영 비용 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포조선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재만 광주시 체육지원과장은 "미포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창단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지역 경제 특성상 연고기업 창단이 어려운 만큼 시민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다른 시도도 축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중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 조만간 프로축구연맹과 '1년 계약 연장' 방안 등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은 광주시가 구상 중인 '1년 계약 연장' 방안을 회의적이다.

김원동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21일 "광주시가 올해 안에 새로운 팀을 창단하지 못한다면 애초 약속대로 회원 가입을 해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퇴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럴 경우 시민의 혈세로 프로축구연맹에 낸 40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프로연맹은 상무를 광주시에서 철수시키고 유치를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연고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5구단' 창단을 선언한 강원도민 축구단(가칭 강원FC)은 12월 창단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광주시와 대비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22일까지 도민주를 공모하는 강원FC 창단준비팀은 도민들의 창단 열기를 이끌어내며 이미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조성했다. 프로축구연맹도 다음달 17일 신인 드래프트를 열어 신생 구단인 강원FC에 14명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주기로 하는 등 강원 FC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기성용 '한국축구 차세대 주자' 1위

### '베스트일레븐' 설문 결과

팬들은 한국축구 세대교체의 선두 주자로 미드필더 기성용(19·FC서울·사진)을 첫순에 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축구전문 월간지 베스트일레븐과 해외 축구사이트 사커라인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공동 실시한 '한국축구를 이끌 차세대 주자'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기성용이 총 응답자 1천572명 중 591명(37.5%)으로부터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기성용 전 광주 금호고 감독의 아들인 기성용은 열아홉 나이에도 소속팀은 물론 20세 이하 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거쳐 최근 A대표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팀 동료인 측면 미드필더 이청용(20)은 395명이 한국축구의 미래로 추천해 기성용의 뒤를 이었다.

공격수 신영록(21·수원)은 191명의 지지로 3위에 랭크됐고, 호주 A리그 뉴캐슬에서 주전으로 뛰는 송진형(21)이 71명, 멀티플레이어 이상호(21·울산)가 58명의 표심을 얻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오늘 광주서 국내 육상 최강자 가린다

국내 육상 고수들이 총 출동하는 '2008 육상 그랑프리 대회'가 22일 광주월드컵 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이 2011년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 유치 후 국내 선수의 경기력향상과 국내육상 팬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남자 10개, 여자 11개 종목에서 초청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 '2008 그랑프리' 개최 男 10개·女 11개 종목

남자 종목은 100m, 400m, 500m, 110m 허들, 400m 허들, 세단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높이뛰기이며 여자는 100m, 400m, 500m, 100m 허들, 400m 허들,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종목별 시즌 랭킹 1~8위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을 겨량시켰으며 체재비 전액 지원, 종목별 1~3위 경기력향상금(1위 10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을 준다.

또 개인최고기록을 세우면 격려금 20만원을 따로 받는다. 대회 최우수선수와 지도자도 선발,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내일부터 필라델피아 vs 탬파베이 월드시리즈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탬파베이 레이스가 23일(한국시간)부터 열리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놓고 일전을 벌인다.

7전4선승제로 열리는 최종 시리즈는 23일 탬파베이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1, 2차전, 필라델피아 시티즌스파크에서 3, 4, 5차전을 벌인 뒤 다시 트로피카나필드로 옮겨 6, 7차전을 치른다.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하는 탬파베이와 1980년 이후 2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필라델피아 모두 큰 무대가 낯설진 마찬가지지만 전통의 명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LA 다저스를 나란히 꺾고 리그 챔피언 자리에 오

른 기세는 여전하다.

1998년 리그에 참가한 뒤 만년 꼴찌에 머물다 올 시즌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팔체 반란'의 주인공 탬파베이는 포스트시즌을 치르며 치를수록 전력의 짜임새가 더 좋아지고 있다. 맷 가자와 제임스 힐즈, 스캇 카즈미어 등 탄탄한 선발진이 매 경기 호투를 펼치며 톨니바퀴처럼 돌아오고 있는 데다 포스트시즌 들어 젊은 타자들을 중심으로 장타력이 무섭게 살아나고 있다.

다만 정규리그에서 마무리를 맡던 트로이 퍼시벨이 부상으로 인해 포스트시즌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신인 마무리 데이비드 프라

이스가 얼마나 역할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창단 이후 4번째로 월드시리즈에 도전하는 필라델피아 역시 타선의 힘에서는 탬파베이에 못지 않다. 지미 롤린스와 제이슨 워스르 이어지는 테이블 세터에 이어 체이스 어틀리, 팻 버렐, 웨인 빅토리오 등이 모두 고비마다 한 방을 쳐줄 능력을 갖췄다.

1차전 선발투수로는 필라델피아가 정규리그 14승과 포스트시즌 3승을 거둔 에이스 콜 해를스를 예고했고 탬파베이는 정규리그 12승, 포스트시즌 1승을 기록한 스캇 카즈미어를 내보낸다.

/연합뉴스

# '피겨 여왕' **확** 달라진다

## 새 프로그램으로 연기 '업그레이드'

### 24일 개막 시니어 그랑프리서 첫 선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사진)가 2008-2009 시즌 첫 무대를 앞두고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김연아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통해 "대회를 앞두고 언제나 긴장되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빨리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특별히 새 기술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만의 연기를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겠다"며 우승 각오를 다졌다.

오는 24일 막을 올리는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를 앞둔 김연아는 22일 경기가 치러질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으로 이동, 본격적인 빙판 적응훈련에 나선다.

'스케이트 아메리카'는 이번 시즌 첫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로 김연아와 함께 일본의 간판 안도 미키(21)와 지난 시즌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자 레이철 플랫폼(16·미국),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파이널 우승자 미라이 나가수(15·미국) 등 쟁쟁한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김연아는 지난 시즌 고관절 부상의 후유증에서 벗어난 만큼 기존 기술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점프의 정석'이라는 칭

호에 걸맞은 깔끔하고 완벽한 연기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춰 의상도 새롭게 준비했다. 쇼트프로그램곡인 '죽음의 무도'에선 어두운 계열의 의상을, 프리스케이팅곡인 '세헤라자데'에선 붉은색 계열에 화려한 장식을 더한 의상으로 지난 시즌보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선

보인다.

김연아를 지도하는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김연아의 유일한 과제는 팬들의 관심과 기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떨치는 것"이라며 "진정한 챔피언이 되려면 김연아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시즌을 앞두고 착실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실을 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아는 26일 오전 11시에 쇼트프로그램을, 27일 오전 5시에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 ■ 日 프로야구 요미우리 VS 주니치 클라이맥스시리즈 오늘 개막



# 李 "작년 패배 꼭 갚겠다"

승엽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2·사진)이 지난해 클라이맥스시리즈 제2스테이지에서 아픔을 안긴 주니치 드래곤스를 상대로 설움전에 나선다.

요미우리는 22일부터 6일간 도쿄돔에서 일본시리즈 진출을 둘러싸고 주니치와 센트럴리그 클라이맥스시리즈 제2스테이지(6전4선승제)를 치른다.

주니치는 지난해 클라이맥스시리즈 2스테이지에서 요미우리를 꺾은 뒤 일본시리즈에서 니혼햄 파이터스를 눌러 일본야구 패권을 쥔 팀으로, 요미우리로서는 이번 시리즈가 지난해 빛을 갚는 경기가 되는 셈이다.

올해 2군으로 강등되는 등 긴 부진을 겪었던 이승엽에게 이번 시리즈는 정규리그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진가를 보여줄 기회인 동시에 오랜 라이벌인 주니치의 타이론 우즈와 마지막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무대다. 이승엽은 홈런을 치지 못한 지난해 클라이맥스시리즈에서 2홈런 5타점으로 활약한 외국인 타자 타이론 우즈와 비교당하며 와타나베 쓰네키 요미우리 회장으로부터 "외국인 선수 때문에 졌다"는 말까지 듣고 체면을 구겼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1군에서 뛰면서 타격감을 찾기 시작한 이승엽은 지난 9월 한 경기 3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시즌 막판 들어 지난해의 위력을 찾았다. 하라 다쓰로 감독 역시 시리즈에 앞서 5번 타순에 중용할 것을 약속했고 이승엽 자신도 "포스트시즌에서 팀 내 타점왕이 되고 싶다"고 밝히며 명예 회복을 버리고 있다.

올해로 39세가 된 우즈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주니치에서 방출될 예정이지만 주니치 타선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잦은 부상으로도 고생하면서도 타율 0.276과 홈런 35개, 타점 77점을 올려 타율 0.248과 8홈런 27타점에 그친 이승엽을 성적 면에서 압도했고 20일 끝난 한신 타이거즈와 클라이맥스시리즈 1스테이지 3차전에서는 0-0으로 팽팽한 투수전이 진행되던 9회말 천금같은 결승 2점 홈런으로 팀의 2스테이지 진출을 결정지었다.

한편 한신과 제1스테이지 3차전에서 상대 투수의 공에 오른쪽 손등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던 이병규는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요미우리와 제2스테이지에 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